

# 도덕적 위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아동의 정서 이해\*

##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Effect of Emotion on Moral Transgressions

김 성 민  
Kim, Seong Mi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developmental trends in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effect of emotion on moral transgressions. The subjects were 120 children, 15 boys and 15 girls each at 4, 6, 8, and 10 years of age. The subjects listened to the moral transgression stories which were revised by this investigator based on Arsenio and Kramer's(1992) study. They reported their emotional attribution, justification, and emotional intensity about the story children engaged in moral transgression. The data of the present study were analyzed by  $\chi^2$  and 2-way ANOVA for repeated measures.

The results showed that (1) most of the children expected victimizers to feel happy. While happy responses decreased with age, fear responses increased with age. Most of the four-year-olds expected victims to feel sad, but 6-, 8-, and 10-year-olds expected anger. (2) Most children justified victimizers' emotions in terms of the outcome produced by victimization. This outcome-focused justification decreased with age, but morality-focused justification increased with age. In contrast, most children justified victims' emotion in terms of the victimization. This victimization-focused justification decreased with age, but morality-focused justification increased with age. (3) Most children viewed physical harm more negatively than theft on the part of victims.

###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인간은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흔히 자기의

사고와 정서를 표현하게 된다. 그 뿐 아니라 타인이 나타내는 정서에 주의를 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게 되는데 사회적 환경에서 보이는 타인의 정서는 현재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미래 사건에 관한 예측을 어느

\* 본 논문은 1993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정도 가능하게 한다. 최근들어 아동의 정서 이해와 정서와 관련된 사회적 사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Bork, 1971; Masters & Carlson, 1984; Shantz, 1983; Thompson, 1987; Weiner, 1985).

사회적 사건의 결과에 대한 아동의 정서이해를 연구한 많은 문헌들은 정서를 “사건을 평가(appraise)하고 행동을 동기화(motivate)시키는 중요한 내적 감독체계이며 안내체계”라는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Bretherton, Fritz, Zahn-Waxler, & Ridgeway, 1986; Harris, 1989; Masters & Carlson, 1984). 이는 아동의 사회적 사건의 결과로 생기는 전형적인 정서에 대하여 알게 되면, 이 각본같은 지식(Scriptlike Knowledge)이 아동으로 하여금 여러가지 다양한 행위가 가져올 가능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해주며, 차후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Harris, 1985)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연구들이 최근 아동의 사회도덕발달(socio-moral development)에까지 확장되고 있는데, 사회도덕적 사건에는 대인간에 서로 행동할 때의 허용된 한계(prescriptive limit)에 초점을 둔 도덕적 규칙 위반이나 사회적 인습 등이 포함된다(Arsenio, 1988). 이 중에서 도덕적 규칙은 개인이 자신과 타인의 요구를 함께 고려하여 행동하도록 해주는 것으로(Hoffman, 1983) 도덕적 규칙 위반 행동에는 타인을 속이는 것, 거짓말, 훔치기, 신체적인 해 등이 있다.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많은 도덕적 상황에서의 중심적인 갈등은 개인의 욕망과 그 상황에서 적용되는 도덕적 규칙간의 갈등이며(Hoffman, 1983) 이것은 갈등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위반자가 금지된 행위에 성공했을 때는 기쁘지만 그의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인해 부끄러움이나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학습이론가에 따르면 이처럼 도덕적 규칙을 위반했을 때 죄책감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도덕성 발달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회도덕 발달 영역에서는 도덕적 사건의 결과로 인해 생기는 정서를 아동이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그의 사회도덕적 행동을 중재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Eisenberg, 1982; Hoffman, 1983; Zahn-Waxler, Radke-Yellow, & King, 1979). 즉, 아동이 다양한 행위의 결과를 예상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사회도덕적 사건의 결과에 대한 정서적 개념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도덕적 규칙을 어긴 위반자 혹은 가해자(victimizer)의 정서를 예상할 때 보이는 발달적 차이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조사되어 왔다(Arsenio & Kramer, 1992; Barden, Zelko, Duncan & Masters, 1980; Nunner-Winkler & Sodian, 1988). Barden과 그의 동료들(1980)은 들키지 않고 부정직한 행동을 한 위반자가 경험할 정서를 예상하는 것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즉 9, 10세 아동들이 두렵거나 슬픈 반응을 예상한 반면 대부분 4, 5세 아동들은 위반자가 기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Nunner-Winkler와 Sodian(1988)의 연구에서는 4세 아동이 위반자에게 기쁠 것이라고 하였으나 8세는 부정적인 정서를 귀인하여 가해자에 대한 정서귀인에 있어 연령에 따른 발달적 전환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Arsenio와

Kramer(1992)의 연구에 의하면 4, 6, 8세 모든 연령의 아동이 가해자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귀인하였고 연령 증가에 따라 이러한 반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Barden과 그의 동료들(1980)이나 Nunner-Winkler와 Sodian(1988)의 결과와 같이 4세와 8세 사이에 급격한 발달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가해자에 대한 정서귀인을 연령에 따라 알아본 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해자에 대한 정서귀인에 중요한 발달적 전환이 있는지는 불명확하며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아동의 정서귀인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Nunner-Winkler와 Sodian(1988)은 주인공에게 귀인하는 정서 배후의 추론을 제공해주는 아동의 정당화 반응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4세는 물질적 보상과 같은 위반의 결과에 초점을 맞춘 반면 8세는 도덕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연령 증가에 따라서 “결과 지향”에서 “도덕 지향”으로의 귀인적 전환의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Arsenio와 Kramer(1992)는 4, 6, 8세 모든 아동이 결과에 초점을 두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정도가 감소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귀인의 정당화 반응이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한편, 도덕적 사건에는 하나의 사건 참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observer), 위반자 혹은 가해자, 수용자 혹은 피해자(victim) 등의 참여자들이 있을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은 하나의 사건 참여자, 즉 피해자에 대한 개념을 따로 보거나 가해자에 대한 개념만을 따로 연구해왔다(Barden et al., 1980; Nunner-

Winkler & Sodian, 1988). 그러나 도덕적 위반에 대한 아동의 이해가 피해자의 고통, 손실과 가해자의 잠재적 이득을 인식하고 통합하는 것을 포함한다(Hoffman, 1987; Turiel, 1983)는 것을 볼 때, 가해자에 대한 개념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개념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규칙 위반에 대한 개념 연구에서는 아동이 여러 위반 유형 중에서 나쁜 정도에 따라 평정해보도록 하였을 때 흠치기나 거짓말보다 신체적인 해를 더욱 심각한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는데(Davidson, Turiel, & Black, 1983; Elkind & Dabeck, 1977; Imamoglu, 1975; Smetana, 1981),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귀인한 정서를 강도차원에서 판단할 때 우리나라 아동은 어떤 위반 유형을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도덕적 위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아동의 정서이해를 알아보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아동의 정서귀인과 이것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동시에 정서귀인에 대한 아동의 정당화 반응을 연령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각 참여자에 대한 정서적 강도 추론이 어떤 위반 유형에서 더욱 부정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알아 보아 아동이 더욱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위반 유형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 2. 연구문제

이상의 연구목적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도덕적 규칙을 위반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아동의 정서귀인은 어떠한

며 이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도덕적 규칙을 위반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아동의 정서귀인의 정당화는 어떠하며 이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강도 추론은 연령과 위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정서의 정의 및 정서에 대한 기능주의적 접근

정서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다. 역사적으로 볼때 정서에 대한 정의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시도된 것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서란 인지를 포함한 복잡한 현상이며 신체적 변화를 수반한다고 정의하였다(Fortenbaugh, 1975 재인용). Wundt(1912)와 Titchener(1910)는 '정서는 정신적 사건'이라고 하였고 Watson(1919)은 정서도 '행동'의 하나로 정의하였다. 또한 James(1890)는 자극적인 사건을 지각한 후에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와 이와 동시에 수반되는 감정의 변화를 정서라고 정의하였다. 즉 정서란 유기체가 경험하는 모든 심리적 상태와 이에 따른 신체 변화를 말한다.

최근에는 정서에 관한 이론 중 기능주의적 접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접근은 심리내적인 조절(intrapsychic regulation)과 대인간의 상호작용에서의 정서의 조직적이고 적응적인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Campos, Barrett, Lamb, Goldsmith, &

Stenberg, 1983) 이의 주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는 심리내적인 조절기능을 가지고 있다. 정서과정은 사건의 의미를 범주화(예: 위험한 것)해서 평가하고 차후의 행동을 동기화시키고 안내하는데에 결정적이다(Charlesworth, 1982; Izard, 1978; Kagan, 1978; Lazarus, 1974; Tomkins, 1963). 둘째, 정서는 대인간의 조절기능을 가지고 있다(Charlesworth, 1982; Izard, 1977). 타인의 표정이나 몸짓 등을 단서로 그의 정서적 상태에 대한 간접적인 지식을 얻게 되면 이를 통해 타인의 행동을 더 정확히 예언하고 적절히 반응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정서는 위와 같은 심리내적인 기능과 대인간의 기능을 하면서 적응적이고 생존 촉진적 과정으로 진화되어 왔다(Bowlby, 1973; Izard, 1977; Plutchik, 1980). Bowlby(1973)는 어두움에 대한 공포, 홀로됨에 대한 공포, 감각스런 변화에 대한 공포는 적응적인 것이라고 보았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사건들과 잠재적 위험 간에는 명백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능주의 관점에 의하면 정서는 사건을 평가하고 인간의 행동을 동기화시키는 중요한 내적인 감독체계이며 안내체계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 2. 사회적 사건에 대한 정서이해

정서를 인식 또는 이해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양하다. Schwartz와 Trabasso(1984)에 의하면 정서를 이해한다는 것이란 정서가 일어나는 상황을 아는 것, 정서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 및 동기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아는 것, 정서 유발로 인한 외적

행동 및 표현을 아는 것, 정서의 원인이 되는 내적 상태 및 상태의 변화, 외적 사건 및 행동을 아는 것 등이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정서이해란 정서를 유발시키는 선행요인들에 대한 이해와, 정서를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 그리고 정서 유발로 인한 결과들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아동의 정서이해에 관한 연구들은 부분적으로는 아동의 공감적 반응에 관한 오랜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Murphy(1937)는 학령전 아동이 곤경에 처해 있는 또래에 대해 공감적 반응을 한다는 것을 관찰하였는데 여기서 비롯된 두 가지 질문은 타인의 정서상태에 공감적 반응을 하는데 있어서 안정된 개인차가 있는가, 그리고 아동이 어떤 기제를 통하여 타인의 정서상태와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공감적 반응을 아동이 초기연령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정서이해 능력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Harris & Saarni, 1989).

아동이 타인의 정서적 반응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자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이 처해있는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 중요하다(Chandler & Boyes, 1982; Gnepp & Chilamkurti, 1988). 아동의 타인 정서 추론능력은 제시되는 상황에 대한 친숙성과 측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연령, 인지 능력, 사회화의 영향, 정서적 성숙정도에 따라 변화된다고 한다(Masters & Carlson, 1984; Perry & Bussey, 1984; Thompson, 1987). Skinner는 정서에 대한 인식을 할 때 어린 아동은 상황이나 행동, 신체적인 반응과

같이 외부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인 외적 단서를 사용하다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내적인 정신 측면을 기초로 하는 내적 단서를 사용한다고 하여, 아동이 발달함에 따라서 정서를 인식할 때 사용하는 단서가 다르다고 하였다(Harris, Olthof, & Terwogy, 1981). 선행 연구 결과에 의하면 4세와 같이 어린 유아들도 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과 같은 기본적인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Camras & Allison, 1985),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능력이 보다 발달되어 가고(Masters & Carlson, 1984) 정서적 경험의 심리적 차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Gnepp & Chilamkurti, 1988).

타인의 정서는 사회적 사건의 상황적 맥락에서 추론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사건에 대해 개인이 내리는 평가에 의해 그의 정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Arnold, 1970; Leventhal, 1980; Mandler, 1978). 사회적 사건의 결과에 대한 아동의 정서이해 발달은 최근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Barden et al., 1980; Bretherton et al., 1986; Fabes, Eisenberg, McCormick, & Wilson, 1988; Gnepp, Mckee, & Domanic, 1987; Green, 1977; Harris, 1983), 3세와 같이 어린 아동도 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의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 사건을 정확히 지각할 수 있고(Borke, 1971; Harter, 1982; Reichenbach & Masters, 1983), 이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Masters & Carlson, 1984; Weiner, 1985)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 3. 도덕적 위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아동의 정서이해

사회도덕 발달영역에서는 도덕적 사건의 결과에 대한 아동의 정서이해가 그의 사회도덕적 행동을 중재한다고 본다. Hoffman(1983)은 도덕적 사건으로 생기는 전형적인 정서적 반응에 대해서 아동이 일반화된 각본을 형성하게 되면 그러한 각본은 사회도덕적 규칙에 대한 아동의 사고를 조직한다고 하였다. 결국, 도덕적 위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아동의 정서이해는 여러 다양한 행위의 결과를 예상해서, 차후의 행동을 그에 맞게 계획하는데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Berk(1989)도 도덕적 사고가 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은 공감이나 정서이해와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해 중개되어 아동의 도덕적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이같은 관점에서 아동의 정서개념이 사회적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는데, 위반자의 정서적 반응에 대한 정보는 아동이 위반의 의도성을 판단할 때 영향을 주며(Nelson, 1980), 벌의 적정 수준을 판단할 때 영향을 준다(Rybush, Roodin, & Hallion, 1979). 또한 도덕적 규칙의 보편성과 가변성에 관한 아동의 판단에 영향을 준다(Smetana, 1985). 최근에는 공감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관심의 문제가 도덕성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Gilligan과 Wiggins(1990)는 도덕성의 기초가 아동발달의 초기에 나타난다고 밝히면서 그 근거로 유아들의 타인감정에 대한 민감성을 예로 들고 있다.

도덕적 사건에 포함되는 도덕적 규칙은 타인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관심이 기초가 된다(Smetana, 1985). 사회인습적 규칙과 도덕적 규칙에 관한 아동의 개념을 조사한 일련의 연

구에서는 3세와 같이 어린 아동도 도덕적 규칙과 사회인습적 규칙을 구분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구분은 더욱 명확해져서 아동은 도덕적 규칙을 일반화된 것이고 불변적인 것이라고 판단하며 도덕적 위반은 따로 규칙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라도 나쁜 것이며 권위와도 무관하게 나쁜 것이라고 판단한다(Davidson et al., 1983; Nucci, 1981; Smetana, 1981; Weston & Turiel, 1980)고 한다. 이러한 도덕적 규칙이 포함된 도덕적 사건은 갈등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데, 일반적으로 원하는 것을 하는 것과 그것을 위해 도덕 기준을 위반해야하는 것 간에 갈등이 생기기(Harris, 1989) 때문이다. 금지된 행위에 위반자가 성공했을 때는 기쁘지만 그의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인해 죄책감 같은 것이 경험될 수 있다(Nunner-Winkler & Sodian, 1988).

한편 도덕적 상황은 여러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의미를 갖게 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사건에 대해 느끼는 정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사건 참여자에는 관찰자, 가해자, 피해자 등이 있을 수 있는데(Arsenio, Berlin, & O'Desky, 1991) 아동은 돕기, 나누기 등은 참여자들간에 유사한 정서적 반응을 가져온다고 판단하는 반면, 위반은 가해자를 기쁘게 만들지만 피해자를 슬프게 만든다고 생각한다(Arsenio & Ford, 1985). Thompson과 Hoffman(1980)은 도덕적 위반 행동에 반응할 때의 감정이입의 역할에 관해서 연구하였다. 아동들에게 도덕적 위반 행동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동 자신이 가해자라면 자기 감정이 어떻게 추론해보도록 하였다. 이 때 일부 아동들은 피해자의 감정을 묘사해 본 후 자기 감정을 추론하게 하였는데, 이 아동들을 자기 감

정만을 추론해 본 아동들과 비교해 본 결과, 피해자의 감정을 먼저 묘사해 보았던 아동이 나중에 위반자의 역할 추정시 죄책감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

이러한 도덕적 위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아동의 정서이해에 대해 연령에 따른 발달적 차이를 본 연구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Barden과 그의 동료들(1980)은 4-5세, 9-10세, 12-13세 아동을 대상으로, 들키지 않고 부정직한 행동을 한 위반자의 정서상태를 추론하도록 하였을 때, 9-10세는 위반자가 두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한 반면, 대부분의 4-5세 아동은 기쁨을 기대하였다. Zelko와 그의 동료들(Zelko, Duncan, Barden, & Garber, 1986)은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여러 유형의 사회적 사건을 제시한 후, 아동에게는 각 사건에 대한 자신의 정서를 예상해 보도록 하고, 성인에게는 그 상황에서 아동이 어떻게 느낄지를 질문하였다. 여러 사건들 중 발각되지 않은 부정직한 행동을 했을 때, 아동은 자신이 기쁨 것이라고 하였으나 성인은 아동이 슬퍼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 이와 같은 불일치는 성인이 아동을 사회화시키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경감시킬 수 있다(Arsenio & Kramer, 1992). Nunner-Winkler와 Sodian(1988)은 4, 6, 8, 10세를 대상으로 하여 가해자에게 정서귀인을 하도록 하고 동시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4세는 가해자에게 기쁨을 귀인하였으며 8세에서는 대부분 가해자에게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귀인하여, 4세와 8세 간에 발달적 전환이 일어난다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4세, 6세가 행위의 결과에 의해 정서가 완전히 결정된다고 보는 반면 8세는 도덕적 기준을 고려한 행위

의 평가가 위반자의 정서에 영향을 준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정서귀인과 정서귀인의 정당화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건에 대한 사람의 감정은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뿐 아니라 규범적 기준과 일치했는지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표현할 승인 여부에 의해서도 영향받는다는 것을 점점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Harris, 1989). 즉, 타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때는 기쁘지만 그렇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는 슬프다는 것이다. 또한 Weiner(1985)는 타인의 정서적 반응에 대해 귀인하는 것을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한가지는 원인에 대한 고려 없이 타인의 일반적인 성공이나 실패의 결과를 기초로 판단하여 기쁨, 슬픔, 당황, 실망과 같이 단순한 정서적 반응으로 표현되는 결과-의존적 귀인(outcome-dependent attribution)이며, 다른 하나는 결과 이면에 있는 사회적 기준같은 원인을 함께 고려하는 인과-의존적 귀인(causal-dependent attribution)으로서, 이것은 자부심, 화남, 놀라움과 같은 정서적 반응으로 표현된다. 인과-의존적 귀인은 개념적으로 결과-의존적 귀인보다도 더 복잡하고 발달된 귀인형태인데 Shantz(1983)는 어린 아동은 보다 단순한 결과-의존적 정서귀인을 하나 인과적 이해와 심리적으로 복잡한 정서적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인과-의존적 단계로 점차 발달하게 된다고 하였다.

Arsenio와 Kramer(1992)는 4, 6, 8세를 대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두 참여자에 대한 아동의 정서귀인과 함께 아동의 정당화 반응을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4, 6, 8세 아동들은 피해자에게 슬픔을 귀인하였고 이 때 8세

는 화남을 선택하는 빈도가 많았다. 또한 4, 6, 8세 아동 모두가 가해자는 기쁨을 귀인하였고 이것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반면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귀인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다. 따라서 Nunner-Winkler와 Sodian(1988)의 결과에서 보여준 4세와 8세 사이의 발달적 전환은 보이지 않았다. 또한 아동의 정당화 반응을 보면, 피해자의 정서를 귀인할 경우에 4, 6세 아동은 단순한 해나 위반 그 자체에 초점을 두나, 8세에 가면 위반에 초점을 두는 것이 현저히 줄고 도덕적 규칙과 결과를 동시에 고려하였다. 또한 가해자의 정서를 귀인시킬 때는 모든 연령의 아동이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시 연령 증가에 따라 점차적으로 도덕적 규칙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Elkind와 Dabek(1977)은 유치원, 국민학교 2, 4학년 아동들의 도덕적 판단을 분석하였는데 동기가 같을 때는 모든 연령층이 재산피해보다 신체상해인 경우 더 많은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것은 신체적인 해가 거짓말이나 훔치기보다 숨겨질 수 없는 명백한 행위이기 때문일 것이다(Nunner-Winkler & Sodian, 1988). 마찬가지로 다른 연구들(Davidson et al., 1983; Smetana, 1981)에서도 위반 유형 중 심각한 위반을 나쁜 정도에 따라 평정하도록 했을 때 신체적으로 해를 입히는 것이 훔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도덕적 위반이라고 하였다. 도덕적 위반의 심각성 정도를 아동이 귀인하는 정서를 통해서 알아본 Nunner-Winkler와 Sodian(1988)의 결과에 의하면 거짓말과 신체적인 해의 두가지 위반 유형 중 거짓말을 한 가해자보다 신체적으로

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부정적인 정서를 귀인하는 아동이 더 많았다. 즉 거짓말보다 신체적인 해를 더욱 심각한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Arsenio와 Kramer(1992)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훔치기보다 신체적인 해에서 더 부정적인 정서를 갖는다고 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어린 아동은 아직 정서적 경험이 충분치 않고 인지구조 역시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피상적인 결과에 의해 타인의 정서를 추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하여 사회적 규범을 습득하게 되면 타인의 정서를 추론할 때 도덕적 판단을 고려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만 4, 6, 8, 10세 아동 각 30명씩 총 1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선정을 위하여 서울시내 중류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1개 유치원과 1개 국민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유치원에서는 4세반의 남녀 아동 각 15명씩 총 30명과, 국민학교에서는 해당 연령의 아동이 있는 1, 3, 5학년에서 각 1학급을 본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후 각 학급내의 남녀 아동 각 15명씩 총 30명을 무선으로 선정하였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쓰여진 도구는 3종류로, 도덕적 위반 행동 이야기, 얼굴표정 카드 및 정서



적 강도 추론카드이다.

도덕적 위반 행동 이야기는 Arsenio와 Kramer(1992)가 사용한 신체적인 해와 훔치기의 2가지 이야기를 본 연구자가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이야기를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할 때 해당되는 그림(15×24cm)을 제시하였는데 그림에 나타난 주인공들의 얼굴에는 정서표현이 나타나지 않게 그렸다. 얼굴표정카드는 도덕적 위반 행동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주인공이 느끼는 정서를 귀인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김미숙(1986)의 자료를 참고로 4가지(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 얼굴표정 그림을 사용하였다. 정서적 강도 추론카드는 아동이 각 주인공에게 정서를 귀인시킨 후 정서적 강도를 추론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원의 지름(2, 3.5, 5, 6.5cm)을 다르게 그려 4점 척도화(아주 조금/조금/많이/아주 많이) 하였다.

### 3. 연구절차

#### 1) 예비조사

연구도구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는 만 4세와 8세 아동 각 10명씩 20명을 대상으로 하여 Arsenio와 Kramer(1992)가 사용한 2가지 도덕적 위반 행동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는지와 3가지 그림의 연구도구가 적절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아동의 정서적 반응에는 단순히 “좋아요, 나빠요, 기뻐요, 슬퍼요”외에도 “화나요, 두려워요”등의 반응이 나왔다. 따라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4세와 같이 어린 아동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다(Felleman, Barden, Carl-

son, Rosenberg, & Masters, 1983; Harter, 1983)는 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의 4가지 정서로 정서의 범주를 확정하였다.

2차 예비조사에서는 얼굴표정카드의 각 표정이 표현하고자 하는 정서와 일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일차적으로 4가지(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 각 얼굴표정이 표현하려는 정서로 적절한지 아동학을 전공한 대학원생 3명에게 안면 타당도를 구하였다. 또한 만 4, 6, 8, 10세 각 10명씩 40명을 대상으로 각각의 정서와 일치하게 얼굴표정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으며 정당화 반응의 설명범주를 결정하였다. 또한 검사 소요 시간은 만 4세가 약 15분, 6, 8, 10세는 약 10분이었다.

#### 2) 본조사

본조사는 만 4, 6, 8세 아동 각 30명씩 총 120명을 대상으로 1993년 4월 2일부터 4월 9일 사이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자와 아동학을 전공한 보조 연구자 2명이 아동을 개별 면접하였다. 본조사에 앞서 보조 연구자들에게 3종류 도구의 사용법과 면접절차, 면접할 때의 주의사항 및 기록방법에 대해서 사전훈련을 실시하였다. 대상 아동은 2가지 도덕적 위반 행동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검사자는 각 이야기를 들려준 후 각 참여자에 대한 정서 귀인과 그에 대한 정당화, 그리고 정서적 강도를 조사하였으며, 이 때 피해자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한 다음 가해자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2가지 도덕적 위반 행동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신체적인 해>

이것은 두 친구 민호와 철수의 이야기입니다.

- (1) 어느날 민호와 철수는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네를 타고 싶었는데 마침 그네 중 하나가 비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 (2) 철수는 그네를 타고 있는 민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철수도 그네가 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철수는 그네를 타고 있던 민호 뒤에 가서 민호 등을 힘껏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 (3) 지금 철수는 아까 민호가 탔던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훔치기〉

이것은 두 친구 영수와 진호의 이야기입니다.

- (1) 어느날 영수와 진호는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영수의 어머니는 영수가 포도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도시락 가방에 포도를 넣어주셨습니다.
- (2) 그런데 진호도 포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진호는 영수의 포도를 몰래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 (3) 지금 진호는 영수의 포도를 먹고 있습니다.

면접에 앞서 4장의 얼굴표정 그림을 제시하고 아동이 검사자가 질문한 정서와 일치하게 얼굴표정을 선택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부정확하게 선택한 아동은 검사자가 수정해준 후 다시 확인을 하였다. 2가지 도덕적 위반 행동 이야기의 제시순서는 순서 효과를 없애기 위해 무선으로 제시하였고 각 위반 이야기마다 그림 속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미리 손으

로 지적해 주었다.

#### 4. 자료의 처리와 분석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귀인하는 정서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것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이 귀인한 정서를 연령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내고  $\chi^2$ 검증을 하였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서귀인에 대한 정당화 반응은 선행연구(Arsenio & Kramer, 1992; Nunner-Winkler & Sodian, 1988)를 기초로 하여 예비조사에서 결정된 3가지 범주에 따라 내용을 분석하였다. 정당화 반응의 3가지 범주와 반응의 예는 〈표 1〉과 같다. 내용분석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연령 당 10명씩을 무선적으로 표집하여 총 40명에 대하여 본 연구자와 아동학 전공자 1명간 일치 정도를 백분율로 산출한 결과, 분석자간 신뢰도는 92%였다. 정서귀인에 대한 정당화 반응

〈표 1〉 정서귀인에 대한 아동의 정당화 반응 범주 및 반응의 예

범주	범주에 대한 정의 및 반응의 예
결과	원하던 것(포도 또는 그네)을 소유/비소유에 대한 언급 예) 포도를 (못)먹으니까, 그네를 (못)타니까
도덕적 규칙	공정성, “허락없이”, 양심가책에 대한 언급 예) 허락없이 남의 것을 훔쳐가서, 생각해보니 잘못된 것을 깨달아
위반	도덕적 규칙에 대한 명백한 언급없이 단순히 위반이나 해를 언급 예) 넘어져서 아파서, 포도를 빼앗겨서

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정당화 반응을 연령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내고  $\chi^2$ 검증을 하였다.

참여자에 대한 정서적 강도 추론이 아동의 연령과 위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이 각 참여자에 대해 정서적 강도 추론 카드에서 선택한 척도를 가지고 점수화하였다. Shaver, Schwartz, Kirson과 O'Connor(1987)가 나눈 위계에 의해서 기쁨은 긍정적인 정서로, 슬픔, 화남, 두려움은 부정적인 정서로 분류하여 점수화하였다. 부정적인 정서의 점수는 1점(아주 많이 슬픔/화남/두려움)부터 4점(아주 조금 슬픔/화남/두려움)까지이며 긍정적인 정서의 점수는 5점(아주 조금 기쁨)부터 8점(아주 많이 기쁨)까지이다. 따라서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정서의 정도가 강하다고 평정하는 것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정서의 정도가 강하다고 평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서적 강도 추론점수를 가지고 연령을 피험자간 요인으로, 위반 유형과 참여자를 피험자내 요인으로 반복측정한 2요인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도덕적 규칙을 위반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정서귀인

###### 1) 가해자에 대한 정서귀인

가해자에게 귀인한 정서에 대해 조사하고 이것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연령에 대하여 아동이 선택한 정서의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chi^2$ 검증한 결과

는 <표 2>와 같다. 아동이 가해자에게 귀인한 정서는 기쁨(80.0%)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두려움(15.0%), 슬픔(5.0%) 순이었으며 화남을 귀인한 아동은 없었다. 가해자에게 귀인한 정서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4세의 91.7%가 기쁨을 귀인한데 비해, 6세는 86.7%, 8세는 85.0%, 10세는 56.7%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기쁨을 귀인하는 반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자에게 두려움을 귀인하는 것은 4세가 3.3%인데 비해 10세는 36.7%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두려움을 귀인하는 반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2> 가해자에게 귀인한 정서의 빈도와 백분율

정서	연령				계
	4세	6세	8세	10세	
기쁨	55 (91.7)	52 (86.7)	51 (85.0)	34 (56.7)	192 (80.0)
슬픔	3 (5.0)	2 (3.3)	3 (5.0)	4 (6.7)	12 (5.0)
두려움	2 (3.3)	6 (10.0)	6 (10.0)	22 (36.7)	36 (15.0)
총계	60 (100)	60 (100)	60 (100)	60 (100)	240 (100)

$\chi^2=32.51, df=6, p<.001$

###### 2) 피해자에 대한 정서귀인

피해자에게 귀인한 정서에 대해 조사하고 이것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연령에 대하여 아동이 선택한 정서의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chi^2$ 검증한 결

과는 <표 3>과 같다. 피해자에게 귀인한 정서는 화남(59.2%)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슬픔(37.5%), 두려움(3.3%) 순이었으며 기쁨을 귀인한 아동은 없었다. 피해자에게 귀인한 정서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4세는 피해자에게 슬픔(51.7%)을 가장 많이 귀인하였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슬픔을 귀인하는 반응은 감소하였다. 반면 화남을 귀인한 아동은 4세가 41.7%인데 비해 6세는 58.3%, 8세는 61.7%, 10세는 75.0%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화남을 귀인하는 반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3> 피해자에게 귀인한 정서의 빈도와 백분율

정서	연령				계
	4세	6세	8세	10세	
기쁨	31 (51.7)	23 (38.3)	22 (36.7)	14 (23.3)	90 (37.5)
슬픔	25 (41.7)	35 (58.3)	37 (61.7)	45 (75.0)	142 (59.2)
두려움	4 (6.7)	2 (3.3)	1 (1.7)	1 (1.7)	8 (3.3)
총계	60 (100)	60 (100)	60 (100)	60 (100)	240 (100)

$\chi^2=15.16, df=6, p<.05$

2.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귀인한 정서의 정당화

1) 가해자 정서귀인에 대한 정당화

아동이 가해자에게 귀인한 정서의 정당화 반응을 각 연령에 대하여 범주별 빈도와 백분

율을 구하고  $\chi^2$ 검증을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가해자 정서귀인의 정당화 반응은 결과(71.9%)에 초점을 두는 반응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위반(17.0%), 도덕적 규칙(11.1%)순이었다. 가해자 정서귀인의 정당화 반응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4세의 84.2%가 가해자의 정서를 귀인할 때 결과에 초점을 맞추며, 6세와 8세가 각각 73.3%, 10세는 56.9%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결과에 초점을 두는 반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해자의 정서를 귀인할 때 도덕적 규칙을 고려하는 반응은 4세가 5.3%인데 비해 10세는 25.9%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도덕적 규칙에 초점을 두는 반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4> 가해자에게 귀인한 정서의 정당화 빈도와 백분율

정당화 범주	연령				계
	4세	6세	8세	10세	
결과	48 (84.2)	44 (73.3)	44 (73.3)	33 (56.9)	169 (71.9)
도덕적 규칙	3 (5.3)	3 (5.0)	5 (8.3)	15 (25.9)	26 (11.1)
두려움	6 (10.5)	13 (21.7)	11 (18.3)	10 (17.2)	40 (17.0)
총계	60 (100)	57 (100)	60 (100)	58 (100)	240 (100)

$\chi^2=20.89, df=6, p<.01$

2) 피해자 정서귀인에 대한 정당화

아동이 피해자에게 귀인한 정서의 정당화 반응을 각 연령에 대하여 범주별 빈도와 백분

율을 구하고  $\chi^2$ 검증을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피해자 정서귀인의 정당화 반응은 위반(58.6%)에 초점을 맞춘 반응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결과(27.4%), 도덕적 규칙(13.9%)순이었다. 피해자 정서귀인의 정당화 반응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4세의 70.0%가 피해자의 정서를 귀인할 때 위반에 초점을 맞추며 6세는 64.4%, 8세는 56.7%, 10세는 43.1%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위반에 초점을 두는 반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규칙에 중점을 두는 반응은 4세가 1.7%였으나 10세는 34.5%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도덕적 규칙에 초점을 맞추는 반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5> 가해자에게 정서귀인에 대한 정당화 반응의 빈도와 백분율

정당화 범주	연령				계
	4세	6세	8세	10세	
결과	17 (28.3)	17 (28.8)	18 (30.0)	13 (22.4)	659 (72.4)
도덕적 규칙	1 (1.7)	4 (6.8)	8 (13.3)	20 (34.5)	31 (13.9)
두려움	42 (70.0)	38 (64.4)	34 (56.7)	25 (43.1)	139 (58.6)
총계	60 (100)	59 (100)	60 (100)	58 (100)	240 (100)

$\chi^2=31.07, df=6, p<.00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은 가해자 정서를 귀인할 때는 결과에 가장 많이 초점을 맞추었으나 피해자 정서를 귀인할 때는 위반에 가장 많이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귀인의 정당화 반응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도덕적 규칙에 초점을 두는 반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연령과 위반 유형, 참여자에 따른 정서적 강도 추론

다음으로 각 참여자에 대한 정서적 강도 추론이 연령과 위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참여자에 대한 정서적 강도 추론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했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연령, 위반 유형, 참여자에 따른 정서적 강도 추론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	참 여 자			
	가 해 자		피 해 자	
	위 반 유형		위 반 유형	
	신체적해	훔치기	신체적해	훔치기
4세 (n=30)	6.87 (1.46)*	6.63 (1.79)	1.37 (.67)	2.13 (1.22)
6세 (n=30)	6.74 (1.86)	6.50 (2.25)	1.33 (.55)	2.03 (1.38)
8세 (n=30)	6.47 (1.97)	6.57 (1.81)	1.47 (.57)	1.43 (.50)
10세 (n=30)	5.10 (2.42)	5.30 (2.32)	1.73 (.69)	1.87 (.87)
총계 (n=120)	6.29 (2.05)	6.25 (2.12)	1.48 (.64)	1.87 (1.07)

\* ( )는 표준편차

또한 참여자에 대한 정서적 강도 추론 점수

가 연령과 위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령을 피험자간 요인으로, 참여자와 위반 유형을 피험자내 요인으로 반복 측정된 변량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연령과 위반 유형, 참여자에 따른 정서적 강도 추론점수의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연령	39.82	3	13.27	3.90**
오차	396.30	116	3.42	
집단내				
참여자	2539.20	1	2539.20	721.16**
위반 유형	3.68	1	3.68	2.75
연령×참여자	57.87	3	19.29	5.48**
연령×위반 유형	.96	3	.32	.24
참여자×위반 유형	5.63	1	5.63	4.15*
연령×참여자×위반 유형	8.57	3	2.86	2.11
오차				
	158.30	116	1.36	

\*p<.05 \*\*p<.01 \*\*\*p<.001

<표 7>에서 보면 정서적 강도 추론점수는 연령에 따른 주효과와 참여자에 따른 주효과가 모두 나타났다. 또한 연령과 참여자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즉, 참여자에 대한 정서적 강도 추론점수는 연령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해자의 경우 연령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으나 가해자에서는 연령차가 크게 나타나고 특히 10세에서 가해자에 대한 정서적 강도 추론점수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위반 유형과 참여자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즉, 참여자에 대한 정서적 강도 추론점수는 위반

유형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정서적 강도 추론점수가 피해자의 경우에는 흠치기보다 신체적인 해에서 더 낮았고 가해자의 경우에는 신체적인 해보다 흠치기에서 더 낮았다. 이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paired t-test로 사후검증을 하여 각 참여자 별로 신체적 해와 흠치기의 정서적 강도 추론점수 간의 평균차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흠치기보다 신체적인 해에서 더 부정적인 정서를 갖는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였고 (p<.001), 가해자는 신체적인 해보다 흠치기에서 더 부정적인 정서를 갖는다고 보았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만 4, 6, 8, 10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도덕적 위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아동의 정서이해를 알아보기 위해, 도덕적 위반을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아동은 어떠한 정서귀인을 하며 이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아동은 이러한 정서귀인에 대해 어떻게 정당화를 하며 이것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각 참여자에 대해서 정서적 강도를 추론하는 것이 아동의 연령과 위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도덕적 위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아동의 정서이해에 대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적 규칙을 위반한 가해자에게 귀인하는 정서는 기쁨이 가장 많았고, 두려움,

슬픔 순이었으며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기쁨을 귀인하는 것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두려움을 귀인하는 것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해자에게 부정적인 정서를 귀인한다는 Arsenio와 Kramer(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Barden과 그의 동료들(1980), Nunner-Winkler와 Sodian(198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나 이 두 연구에서 보고된 4세와 8세 사이의 급격한 발달적 전환이 본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해자에게 기쁨을 귀인하기 보다는 점점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귀인한다는 것은 아동이 정서를 귀인할 때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함께 고려하는 것(Nunner-Winkler & Sodian, 1988; Weiner, 1985)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귀인하는 정서는 화남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슬픔, 두려움 순이었으며 이것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4세는 슬픔을 가장 많이 귀인하였으나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화남을 귀인하는 것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Arsenio와 Kramer(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어린 아동은 슬픔과 같이 단순한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결과-의존적 정서귀인을 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도덕적 기준을 고려하여 화남과 같은 인과-의존적 정서귀인(Weiner, 1985)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가해자에게 귀인한 정서의 정당화 반응은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것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위반, 도덕적 규칙 순이었다. 이것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대부

분의 아동이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정당화하였으나 연령이 증가하면서 결과에 초점을 두는 반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도덕적 규칙에 초점을 두는 반응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이것은 Arsenio와 Kramer(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Nunner-Winkler와 Sodian(1988)의 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Nunner-Winkler와 Sodian(1988)의 연구결과에서 보여준, 4세와 8세 사이의 급격한 전환은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아동이 가해자의 정서귀인시 결과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타인의 정서를 이해할 때 욕구와 결과간에 일치했는지 못했는지에 초점을 두어 이해한다는 Stein과 Levine(1986)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덕판단 발달 측면에서 보았을 때, 도덕적 갈등상황에서 어린 아동이 결과에 초점을 두어 타인의 정서를 귀인한다는 것은 도덕판단 발달단계의 1단계와 2단계에 해당하는 6세 이전의 아동의 경우, 결과에 따라 도덕적 추론을 한다는 Kohlberg(1963)의 견해를 지지하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귀인한 정서의 정당화 반응은 위반에 초점을 둔 반응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결과, 도덕적 규칙 순이었다. 이것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대부분의 아동이 위반에 초점을 맞추어 정당화 하였으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위반에 초점을 두는 반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도덕적 규칙에 초점을 두는 반응은 증가하였다. 이것은 Arsenio와 Kramer(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 정서를 귀인

하고 정당화할 때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공정성 정당화가 증가하며 잠재적인 해로 정당화하는 것이 줄어든다고 하는 Arsenio와 그의 동료들(1989)의 견해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어린 아동은 도덕적 위반에 대해 잠재적인 해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잠재적인 해에 대한 고려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타인의 복지나 권리에 대한 이해로 통합된다는 견해(Arsenio et al., 1989)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어린 아동은 사람을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는 존재로서 보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사회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는 타인이 내리는 기준에 의해 평가되는 것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다(Harris, 1989). 그러므로 아동은 참여자에게 정서기인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인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켜야 한다(Arsenio & Ford, 1985).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도덕적 위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아동의 정서이해는 부분적으로는 부모의 양육 행동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가 일관적으로 아동에게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가져올 피해를 강조함으로써 도덕적 규칙을 강조하게 되면 아동은 위반 후에는 부정적인 정서를 기대할 것이며(Harris, 1989) 정서의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한 기대는 결국 도덕적 갈등상황에서 아동의 행동을 도덕적 규칙에 맞도록 이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나 교사가 내리는 정서적 반응의 평가는 도덕적 행동과 관련된 아동의 자기 평가에 매우 중요하다(Thompson, 1989).

세째,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강도

의 추론은 위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신체적인 해가 흠치기보다 피해자에게 더 부정적인 정서를 가져온다고 판단하였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아동들도 흠치기보다는 신체적인 해가 피해자에게 있어 더욱 심각한 위반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Arsenio와 Kramer(1992), Davidson과 그의 동료들(1983), Elkind와 Dabeck(1977), Imamoglu(197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도덕적 위반이라는 사건은 1차적으로는 타인의 복지, 정당성을 기초로 판단된다(Damon, 1977; Turiel, 1983)고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이 결과는 위반이나, 규칙, 권위에 관해서는 서구 사회나 비서구사회나 마찬가지로 문화적 지향이 동질적이라는 고정화된 견해(Song & Smetana, 1987)를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통해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본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도구의 타당도 측면으로 선행연구자들이 사용한 것을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한 후 예비조사를 거쳐 사용하였으나 이런 도구의 보완 또는 학문적 타당성이 있는 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해자, 피해자 뿐 아니라 객관적인 제 3의 관찰자를 사건 참여자에 포함시켜 아동의 정서기인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었으면 한다.

둘째, 도덕적 위반의 결과에 대한 아동의 정서이해 뿐 아니라 사회도덕적 사건 중 다른 하나인 사회인습에 관한 것도 포함시켜 연구 되었으면 한다.

셋째, 도덕적 규칙을 위반한 가해자에게 부



정적인 정서귀인을 한 아동이 실제로 그러한 도덕적인 갈등상황에서 도덕적인 행동을 보이는지 정서의 기능주의 관점에서 정서추론과 실제로 나타나는 행동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성인을 포함시켜 성인들의 도덕적 위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정서개념도 연구해보았으면 한다. Zelko와 그의 동료들(1986)의 결과에 의하면 성인들은 어린 아동이 부정적인 행동을 한 후 슬퍼하리라고 기대한다고 하였는데 한국 성인들의 개념은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면 한다.

## 2. 결 론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은 도덕적 규칙을 위반한 가해자에게 기쁨을 귀인하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기쁨에 대한 귀인이 감소하는 반면,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귀인이 증가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슬픔귀인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결과 이면의 원인과 도덕적 기준을 고려하는 화남귀인은 증가한다.

둘째, 가해자 정서귀인에 대한 정당화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반응은 감소하는 반면 도덕적 규칙을 고려한 정당화가 증가한다. 피해자에게 정서를 귀인할 때는 위반에 초점을 맞추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반면 도덕적 규칙을 고려한 정당화가 증가한다.

셋째, 흠치기보다 신체적인 해가 피해자에게 더 부정적인 정서를 갖게하는 것으로 아동은 지각한다.

## 참 고 문 헌

- 김미숙. (1986). 사회극화놀이를 통한 유아의 조망수용향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rnold, M. B. (1960). *Emotion and personlaity*(2vol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Arsenio, W. F. (1988). Children's conceptions of the situational affective consequences of sociomoral events. *Child Development*, 59, 1611-1622.
- Arsenio, W. F., Berlin, N., & O'Desky, I. (1991). Children's and adults' understanding of sociomoral affect.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Arsenio, W. F., & Ford, M. E. (1985). The role of affective information in social-cognitive development: Children's differentiation of moral and conventional events. *Merrill-Palmer Quarterly*, 31, 1-17.
- Arsenio, W. F., & Kramer, R. (1992). Victimization and their victims: Children's conceptions of the mixed emotional consequences of moral transgressions. *Child Development*, 63, 915-927.
- Barden, R. C., Zelko, F. A., Duncan, S. W., & Masters, J. C. (1980). Children's consensual knowledge about the experiential determinants of emo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968-976.

- Borke, H. (1971). Interpersonal perception of young children: Egocentrism or empathy?. Developmental Psychology, 9, 263-269.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 Bretherton, I., Fritz, J., Zahn-Waxler, C., & Ridgeway, D. (1986). Learning to talk about emotions: A functionalist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57, 529-548.
- Campos, J. J., Barrett, K. C., Lamb, M. E., Goldsmith, H. H., & Stenberg, C. (1983). Sociomoral development. In M. Haith & J. J. Campos (Eds.), P. H. Mussen (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2. Infancy and developmental psychology (pp. 783-915). New York: Wiley.
- Chandler, M., & Boyes, M. (1982). Social-cognitive development. In B. B. Man (Ed.),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l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Charlesworth, W. R. (1982). An ethological approach to research on facial expressions. In C. E. Izard (Ed.), Measuring emotions in infants and children (pp. 317-33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vidson, P., Turiel, E., & Black, A., (1983). The affect of stimulus familiarity on the use of criteria and justifications in children's social reasoning.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 49-65.
- Dunn, J. (1988). The beginnings of social understandi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Eisenberg, N. (1982).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 Elkind, D., & Dabeck, R. F. (1977). Personal injury and property damage in moral judgments of children. Child Development, 48, 518-522.
- Felleman, E. S., Barden, R. C., Carlson, C. R., Rosenberg, L., & Masters, J. C. (1983). Children's and adults' recognition of spontaneous and posed emotional expressions i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9, 405-413.
- Gilligan, C., & Wiggins, G. (1990). The origin of morality in early childhood relationships. In J. Kagan & S. Lamb (Eds.), The emergence of morality in young children (pp. 277-305).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nepp, J., & Chilamkurti, C. (1988). Children's use of personality attributions to predict other people's emotional and behavioral reactions. Child Development, 59, 743-754.
- Harris, P. L. (1985). What children know about the situation that provoke emotions. In M. Lewis & C. Saarni (Eds.), The socialization of emotion (pp. 161-186). New York: Plenum.

- Harris, P. L. (1989). Children and emotion: The development of psychological understanding. Oxford: Basil Blackwell.
- Harris, P. L., Olthof, T., & Terwogy, M. M. (1981). Children's knowledge of emot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2, 247-261.
- Harris, P. L., & Saarni, C. (1989).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An introduction. In P. L. Harris, & C. Saarni (Eds.),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rter, S. (1982). Children's understanding of multiple emotions: A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 In W. F. Overton (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Hillsdale, NJ: Erlbaum.
- Hoffman, M. L. (1983). Affective and cognitive processes in moral internalization. In E. T. Higgins, A. N. Ruble, & W. W. Hartup(Eds.), Social cognition and social development: A sociocultural perspectiv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mamoglu, E. O. (1975). Children's awareness and usage of intention cues. Child Development, 46, 39-75.
- Izard, C. E. (1971). The face of emotion.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 Izard, C. E. (1978). Emotions as motivations: evolutionary-development perspective. In R. A. Dienstbier(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pp. 163-200).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Kagan, J. (1978). On emotion and its development: A working paper. In M. Lewis & L. A. Rosenblum(Eds.), The development of affect(pp. 11-41). New York: Plenum.
- Lazarus, R. S. (1974). Cognitive and coping processes in emotion. In B. Weiner (Ed.), Cognitive views of human motivation?(pp. 21-32).
- Masters, J. c., & Carlson, C. R. (1984). Children's and adults' understanding of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emotional states. In C. Izard, J. Kagan, & R. Zajonc(Eds.), Emotions, cognition and behavior(pp. 438-46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urphy, L. B. (1937). Social behavior and child personali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Nunner-Winkler, G., & Sodian, B. (1988). Children's understanding of moral emotions. Child Development, 59, 1323-1338.
- Perry, D. G., &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Plutchik, R. (1970). Emotions, evolution and adaptive processes. In M. B. Arnold (Ed.), Feelings and emotions(pp. 3-22). New York: Academic Press.
- Reichenbach, L., & Masters, J. C. (1983).

- Children's use of expressive and contextual cues in judgments of emotion. Child Development, 54, 993-1004.
- Schwartz, R. M., & Trabasso, T. (1984).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In C. E. Izard, J. Kagan & R. Zajonc (Eds.), Emotions, cognition, and behavior. N. 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antz, C. U. (1983). Social cognition. In P. H. Mussen (Series Ed.) & J. H. Flavell & E. M. Markman (Vol.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Cognitive development (pp. 495-555). New York: Wiley.
- Shaver, P., Schwartz, J., Kirson, D., & O'Connor, C. (1987). Emotion knowledge of a prototype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061-1086.
- Smetana, J. G. (1981). Preschool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social rules. Child Development, 52, 1333-1336.
- Song, M. J., Smetana, J. G., & Kim, S. Y. (1987). Korean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conventional trans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3, 577-582.
- Stein, N. L., & Levine, L. (1986). Causal organization of emotion knowledge. Paper presented at the Psychonomic Society Meetings, New Orleans.
- Thompson, R. A. (1989). Causal attribution and children's emotional understanding. In P. L. Harris & C. Saarni (Eds.),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ompson, R. A., & Hoffman, M. L. (1980). Empathy and the development of guilt in the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6, 155-156.
- Tomkins, S. S. (1963). Affect, imagery, consciousness: The negative affects. New York: Springer.
- Turiel, E. (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Morality and conven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iner, B. (1985). An attributional the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emotion. Psychological Review, 92, 548-579.
- Zahn-Waxler, C., Radke-Yarrow, M., & King, R. A. (1979). Child-rearing and children's prosocial initiations towards victims of distress. Child Development, 50, 319-330.
- Zelko, F. A., Duncan, S. W., Barden, R. C., Garber, J., & Masters, J. C. (1986). Adults' expectancies about children's emotional responsiveness: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implicit theories of affect. Developmental Psychology, 22, 109-114.